제3강 장자莊子

◇개요: 장자(莊子, BC 369~BC 289?)는 동양철학에서 가장 문학적이면서 동시에 철학적인 글쓰기를 한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장자는 소통를 추구했던 철학자입니다. 소통(疏通)은 마음을 '터버린다'는 의미의 '소(疏)'와 타자와 '연결한다'는 의미의 '통(通)'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타자와 연결되기(通)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선입견을 터버려야만(疏) 한다는 것이지요.

◇키워드: 타자, 소통, 도(道), 허(虛), 망(忘), 양행(兩行)

1. 장자와 관련된 우화들

1. 장주(莊周)가 조릉의 울타리 안에서 노닐고 있을 때, 그는 남쪽에서 온, 날개의 폭이 일곱 자이고 눈의 크기가 한 치나 되는 이상한 까치를 보았다. 그 까치는 장주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밤나무 숲에 앉았다. 장주는 말했다. "이 새는 무슨 새인가? 그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큰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보지도 못하는구나." 장주는 자신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걸음을 재촉하면서, 석궁을 들고 그 새를 겨냥했다. 그때 그는 한 마리의 매미를 보았다. 그 매미는 방금 아름다운 그늘을 발견해서 그 자신(其身)을 잊고 있었다. 나뭇잎 뒤에 숨어 있던 사마귀 한 마리가 (자신이 얻을) 이익 때문에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其形)을 잊고서 그 매미를 낚아챘다. (장자가 잡기 위해 석궁으로 겨냥하고 있던) 그 이상한 까치도 (자신이 얻을) 이익 때문에 자신의 생명(其眞)을 잊고서 사마귀를 잡으려는 중이었다. 장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했다. "아! 사물들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연루되어 있고, 하나의 종류가 다른 종류를 부르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가 자신의 석궁을 던지고 숲으로부터 달려 나왔을 때, 사냥터지기가 그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왔다.

장주는 집으로 돌아와서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인저(藺且)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무엇 때문에 요사이 밖으로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장주가 대답했다. "지금까지 나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形)만을 지켰지 나 자신(身)을 잊고 있었다. 나는 혼탁한 물로 비추어 보았을 뿐 맑은 연못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게다가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미 '다른 풍속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얼마 전 내가 조릉에서 놀고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잊었다. 이상한 까치가 나의 이마를 스치고 날아갈 때 나는 밤나무 숲을 헤매면서 나의 생명을 잊었고, 밤나무 숲의 사냥터지기는 나를 범죄자로 여겼다. 이것이 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장자』「산목(山木)」

2. 초나라 위왕(재위기간: BC 339-329)이 장주가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재상으로 삼기 위해 사자를 보내 귀한 선물들로 그를 맞이하도록 했다. 장주는 웃으면서 초나라 사자에게 말했다. "천금은 큰 이익이고 귀족과 재상이란 지위는 존귀한 자리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도시 밖의 예식에서 희생으로 쓰인 소를 본적이 없는가? 수 년 동안 배불리 먹인 후에, 그 소에게 무늬가 있는 옷을 입히고 조상의 묘로 끌고 간다. 그 순간에 그 소가 자신이 단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지 버려진 송아지이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즉시 나가라. 나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국가를 가진 자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더러운 도랑 속에서 즐겁게 헤엄치면서 놀겠다. 평생토록 나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나의 뜻을 유쾌하게 할 것이다."『사기(史記)』「노장신한열전(老莊申韓列傳)」

3. 장자가 죽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그에게 후한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장자가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속 관과 겉 관으로 생각하고 해와 달을 한 쌍의 옥으로 생각하며, 별들을 구슬들로 생각하고 만물들을 장례 예물로 생각하고 있다. 나의 장례 용품에 어찌 빠진 것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것에 무엇을 추가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을 먹을까 두렵습니다." 장자는 말했다. "땅 위에서는 까마귀와 솔개에게 먹힐 것이고, 땅 아래에서는 나는 개미와 땅강아지에게 먹힐 것이다. 까마귀와 솔개의 먹이를 빼앗아 개미와 땅강아지에게 주려고 하니,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편파적이냐!"『장자』「열어구(列禦寇)」

2.『장자』훔쳐보기

1.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기만 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은 것이다. 『장자』「지락(至樂)」

2. '원숭이 키우는 사람(狙公)'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러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명목이나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원숭이들은 성을 내다가 기뻐했다. (그 원숭이 키우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를 따랐을(因是)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옳고 그름'(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대립을 조화시키고, '천균(天鈞)'에 편안해 한다. 이를 일러 '양행(兩行)'이라고 한다.『장자』「제물론(齊物論)」

3. 안회가 말했다. "제가 심재를 실천하기 전에는 안회라는 자의식이 실재처럼 존재했었지만, 심재를 실천하자 자의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움(虛)이라 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이제 되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네가 위나라에 들어가 그 울타리 안에 노닐 때, 이름 같은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받아 주거든 유세하고, 받아주지 않거든 멈추어라. 문도 없애고 언덕도 없애서 너의 마음을 통일해서 부득이한 일에만 깃들면, 괜찮을 것이다. (…) 너는 날개가 있는 것이 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는 것을 들어보았겠지만, 날개가 없이 난다는 것은 듣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앎으로 안다는 것을 들어보았겠지만, 알지 못함으로 안다는 것은 듣지 못했을 것이다."『장자』「인간세(人間世)」

4. 포정이라는 훌륭한 요리사가 문혜군을 위하여 소를 잡았다.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을 굽히고. 그 소리는 설컹설컹. 칼 쓰는 대로 설뚝설뚝. 완벽한 음률. 무곡「뽕나무 숲(桑林)」에 맞춰 춤추는 것 같고, 악장「다스리는 우두머리(經首)」에 맞춰 율동하는 것 같았다. 문혜군이 말했다. "참, 훌륭하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포정은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도(道)입니다. 기술(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삼 년이 지나자 온전한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神)으로 조우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 기관은 쉬고, 신(神)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낸 결을 따라 큰 틈바귀에 칼을 밀어 넣고, 큰 구멍에 칼을 댑니다. 이렇게 정말 본래의 모습에 따를 뿐, 아직 인대나 건을 베어 본 일이 없습니다. 큰 뼈야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요리사는 해마다 칼을 바꿉니다.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요리사는 달마다 칼을 바꿉니다.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칼날은 이제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칼날이 틈이 있는 뼈마디로 들어가니 텅 빈 것처럼 넓어, 칼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년이 지났는데도 칼날이 이제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근육과 뼈가 닿은 곳에 이를 때마다 저는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워 조심합니다. 시선은 하는 일에만 멈추고,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칼을 극히 미묘하게 놀리면 뼈와 살이 툭하고 갈라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같습니다. 칼을 들고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흐뭇한 마음으로 칼을 닦아 갈무리를 합니다." 문혜군이 말했다. "훌륭하다! 나는 오늘 포정의 말을 듣고 삶을 기름(養生)이 무엇인지 터득했노라."『장자』「양생주(養生主)」

5. 도는 무엇에 가리어져 진실한 도(道)와 거짓된 도의 구분이 생긴 것일까? 말하기는 무엇에 가리어져 시비 판단이 생긴 것일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 도가 부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말하기가 부정될 수 있겠는가? 도는 작은 것의 완성으로 가리어지고, 말하기는 화려한 수사들로 가리어진다. (…) 도는 걸어가는데서 이루어지고, 외물들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장자』「제물론(齊物論)」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